

# 동학개미 ‘퇴출 경계령’ 발동 관리종목, 올해만 8곳 늘었다

한계기업 440곳, 8년 만에 2.7배↑  
코스닥 한계기업 23%로 급증  
관리종목 84곳, 투자자 주의보  
금융위 “부실기업 퇴출 속도”

동학개미(국내 주식투자자)들 사이에 ‘퇴출’ 경계령이 내려졌다. 최근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진데다 돈벌이가 신통치 않은 기업들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퇴출에 나서면서 상장폐지 기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8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5개사) 대비 3개사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인 코스피 18개사, 코스닥 66개사 등 총 84개사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미리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기업이 정상화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법인이 최소한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실적 악화로 부실이 심화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문제는 관리종목 지정이 투자자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상장폐지의 전 단계로 인식되면서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금양은 지난 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관리종목에 포함됐다. 이후 금양의 주가는 26%가량 하락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또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 정지, 신용거래 금지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이차전지 솔루션 기업인 퀀텀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매매가 정지되면서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한계기업 증가에 우려하고 있는 투자자’ 이미지.

워졌다. 이처럼 관리종목 지정 기업들은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돼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증시 밸류업의 발목을 잡는 한계기업도 많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국(G5)과 한국의 상장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3분기 기준 분석대상 상장사 2260곳 중 19.5% (440개)가 한계기업이었다. 2016년 163곳(7.2%)에서 8년만에 2.7배로 늘었으며, 미국(25.0%)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경우로, 사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만으론 이자를 상환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계기업 비중은 특히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중에선 한계기업이 2.5%p 증가(8.4%→10.9%)한 반면, 코스닥 상장 한계기업은 17.1%p 증가(6.6%→23.7%)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상황이 더 어렵다는 게 나타났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올해 증시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중점 과제로 ‘상장폐지·IPO 개선안’을 꼽았다. 금융위가 올해 발표한 개선안은 감사의견이 2회 연속 미달인 상장사는 즉시 상장 폐지되도록 하는 등 ‘좀비기업’의 증시 퇴출을 신속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의 증가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증시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계기업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별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지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며 “관리종목에서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원활하게 ‘엑시트(exit·자금회수)’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회사채 투자열기 지속… 수요예측 10조 돌파

금투협, ‘2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장외 거래량 441조9000억 기록

경기 침체 및 금리 인하 여파로 회사채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수요 예측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가 12일 발표한 ‘2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수요 예측 건수는 141건, 금액은 1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2조81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전체 수요 예측 참여 금액도 63조457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조8460억원 늘었다. 참여율 역시 630.8%로 전년 동월 대비 29.3%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채권 발행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2월 전체 채권 발행액은 86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7000억원 늘었다. 이 중 회사채 발행액은 19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4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

리 차이를 나타내는 크레딧 스프레드는 ‘AA-’ 등급과 ‘BBB-’ 등급 모두에서 축소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 발행 잔액은 순발행이 39조원 증가하면서 총 2882조원에 달했다. 발행량 증가에 따라 2월 장외 채권 거래량도 전월보다 76조7000억원 증가한 44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은 22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는 국채와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되며 3조4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투자자도 국채 7조5000억원, 통인증권 1조5000억원을 각각 사들였지만, 기타 채권에서 3조1000억원을 순매도해 전체적으로 5조900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2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271조5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5조2000억원 증가했다. /원관희 기자

## 키움증권, ‘Gen-Z’ 고민시 모델 새 CF 공개

2030 Z세대 투자자 공략

키움증권이 Gen-Z 투자자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배우 고민시를 모델로 세운 광고 캠페인을 시작한다.

12일 키움증권은 고민시와 함께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 ‘투자에 대충이 어땠어? 시작부터 키움’을 공개했다. 캠페인은 2030세대의 일상을 배경으로 한다. 투자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고민시가 조언을 던진다. 투자금이 적거나 혹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투자를 쉽게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한다. “투자에 대충이 어땠어?”라는 질문을 던지며 다시 한번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전한다.

키움증권은 2030세대가 기억하고 회자할 수 있도록 카피를 만들었다. 키움 히어로즈 젊은 팬들이 키움의 애칭으로 부르는 ‘뽀’이란 단어를 활용했다. ‘투자의 시작은 키움에서’라는 의미를 담아 ‘레디 뽀’이란 말로 캠페인을 마친다.

광고 캠페인 본편은 두 편으로 각 분량은 15초와 45초다. 6초짜리 짧은 영상



12일 키움증권은 고민시와 함께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 ‘투자에 대충이 어땠어? 시작부터 키움’을 공개했다. /키움증권

도 추가로 3편을 제작해 본편에 붙이는 식으로 캠페인을 다양화했다. 세로형 숏츠도 3편 만들었다. 캠페인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당근 등 플랫폼과 넷플릭스·티빙 등 OTT(동영상 스트리밍)에서 만나볼 수 있다. /원관희 기자

## 박현주 “신뢰·혁신으로 인도 금융시장 도약”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 인도서 비전 선포  
미래에셋쉐어칸 인수 100일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 제공”

미래에셋증권은 인도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한 ‘그룹 비전 선포식’을 인도 현지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미래에셋쉐어칸 인수 100일을 기념해 ‘Shaping the Future Together(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그룹 글로벌전략가(GSO) 박현주 회장이 참석해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과 경영 철학을 공유했다.

박 회장은 축사에서 미래에셋의 글로벌 금융 노하우와 미래에셋쉐어칸의 현지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인도 금융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고객을 우선하는 사명감과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서비스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쉐어칸 인수를 통해 인도 시장에서 종합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적극 확대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기술력을 갖춘 현지 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꾸준히 발굴하고, 기업금융(IB) 경쟁력을 빠르게 제고할 계획이다.

진화하는 인도 투자환경에 발맞춘 자금조달 솔루션을 기관에 제공하는 한편 독자적이고 혁신적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가치를 높이는 투자 원칙도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투자 솔루션을 개발해 고객별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인도 관련 금융 상품

과 서비스를 글로벌 고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박현주 회장은 “미래에셋은 현재 19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투자 전문 그룹으로 6000억달러(약 870조원) 이상의 운용자산(AUM)을 관리하고 있다”며 “신뢰와 혁신, 열정과 고객에 대한 헌신으로 인도 법인의 성공과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 인도법인은 미래에셋쉐어칸 인수 완료 후 통합 기준 고객 계좌 520여만개를 확보하고, 130여개 지점 및 4400여명의 비즈니스 파트너 등 강력한 현지 네트워크를 갖췄다.

이를 발판으로 인도 현지 5위 증권사 도약을 목표로 자산관리(WM), 투자는 행(IB) 중심으로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전자투표 활성화… 수수료 인하·홍보 확대

예탁원, K-VOTE 수수료 최대 90%↓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시스템(K-VOTE)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설명회 개최와 홍보를 확대하는 한편, 주주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12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195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예탁원은 발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종 협회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개인주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 홍보를 확대하는 등 전자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VOTE 수수료 개편도 단행됐다. 주주수 2만 명 미만 기업의 경우 수수료를 구간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인하했으며,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기업에는 전자위임장 수수료의 70%를 감면해 준다. 또한 일자리 으뜸기업과 사회적기업에는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이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면 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 채택을 결정하고, 예탁원을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후 주총 14일 전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원관희 기자